

목O문화01C      생명 윤리 쟁점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학생 상호작용의 유형과 기능  
10:00~10:20      김희백 박지영  
                         서울대

이 연구는 교육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의 일반생물학 강좌 동안 진행된 생명 윤리 이슈에 대한 소그룹 논변 활동을 분석한 것이다. 이 강좌는 생물학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 후에 관련 쟁점에 대한 의사 결정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15명의 학생들은 세 개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의사 결정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곱 개의 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논의를 a) 당화 내용과 소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b) 쟁점과 관련되는 과학 지식에 대한 고려 c) 각 쟁점에 대한 인식과 과학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논변 활동은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과학과 관련된 쟁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쟁점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데는 긍정적이었지만, 관련 과학 지식을 상기하고 적용하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 수업 시간에 논쟁적인 이슈를 다룰 때 고려할 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O문화02C      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과 부모의 역할  
10:20~10:40      김성원 정윤숙  
                         이화여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흐르는 현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출처는 더 이상 학교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교재와 자료가 접할 수 있는 지식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가정이나 사회, 사이버 공간까지 지식이 통용되는 범위가 널리 확장되었으며,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 또한 인쇄자료에서 동영상,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학습으로는 현 사회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학습자들은 학교 밖에서 비형식적 학습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과학관은 학생들이 학교 과학 수업 이외에 과학이라는 학문을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형식적 학습 경로 중 한가지이다. 과학관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과학관에서는 끊임없이 비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결과는 학교 교육과 연관되어 오개념으로 작용할 수도, 학습 내용을 강화할 수도 있다(이선경, 2005). 앞선 연구들에서는 과학관 안에서 전시물이 제공하고 있는 학습 자료의 유형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한 논의만 이루어질 뿐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학습은 학교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제 과학관을 관람하는 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분석을 통하여 (1) 과학관의 전시물 관람 활동이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여 비형식적 교육 발생 여부, (2) 관람 활동 중 대화 학습자의 관람 태도에 미치는 영향, (3) 비고스키의 관점에서 본 언어를 통한 학습, (4) 과학관에서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 상황, (5) 과학관을 방문한 부모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과학관의 역할 정도 등을 이해하였다.